

##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서 임종 맞지 않도록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최초 수립,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실현 -
- 실태조사 주기 5년 → 1년 단축, 위험군 사회적 연결 지원 -
- 건강, 가사 일상문제 해결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8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게 복지의 출발”(대통령, '23.1.9. 복지부 업무보고)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1년, 1.06명 → '27년, 0.85명)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한다.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한다.

\*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주도형 서비스(안부확인, 생활지원 등) 제공('22.8월~'23.12월)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한다.

<붙임> 1.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2. 기본계획 주요내용  
 3.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4. 기본계획 추진과제 목록

<별첨>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서기관	노정훈 (044-202-3120) 이관형 (044-202-3124)
<청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과 장 팀 장 사무관	이선영 (044-202-3370) 임세희 (044-202-2304) 오은정 (044-202-3706)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김승일 (044-202-3870) 김준범 (044-202-3872)
<중·장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곽순현 (044-202-2810) 문미향 (044-202-280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권민정 (044-202-3220) 채지현 (044-202-3227)
<노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이윤신 (044-202-3465) 이태경 (044-202-3459)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박문수 (044-202-3470) 최단비 (044-202-3472)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이병성 (044-202-7451) 이종인 (044-202-7435)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김범석 (044-202-7454) 김우형 (044-202-7457)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이금순 (02-2100-6321) 김대선 (02-2100-6283)
<문화기반시설 활용 연결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이준호 (044-203-2511) 이안진 (02-203-2522)
<평생 교육 통한 연결 지원>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권삼수 (044-203-6383) 이호승 (044-203-6388)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보건복지부

# 충추한 연결사회 조성으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1. 고독사 위험군 발굴

**인적 안전망 등을 통한 발굴**

-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 \*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군 발굴하는 지역주민, 지역민체력 상진
- 고독사 취약지역\* 조사 실시
  - \* 다세대주택, 고시원 밀집 지역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

- 고독사 위기정보와 발굴모형 개발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 고독사 위험군 판단기준 마련
- 자가선단 체크리스트 개발·배포

## 2. 사회적 고립 해소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 소통·교류 프로그램 제공
-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 활동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 1인 가구 자조모임 등 지원(가족센터)
- 주민관개아\* 형성 지원(사회복지관)
  - \* 지역주민 물려 모임, 고독사 예방 모임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연결**

- AI 안부 전화
- 스마트기기 활용 금융상황 감지

## 4.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구축



### 지역 주도형 서비스 신설 지원

- 고독사 예방 서비스 전수조사해 우수사례 전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지역 확대

### 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

- 위기정보 입수, 정보연계 강화 위한 법률 개정
-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 추진

## 3.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청년 위험군을 위한 정서 및 취업지원**

-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추진
- 정신건강관리 강화\*
  - \*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기 단속 (10년 ~ 2년), 1:1 전문상담상담 연계 등
- 구직단념·자립준비 청년 취업지원\*
  - \*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등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문제 관리·지원**

- 돌봄·병원 동행 등 생활지원 서비스 신설
- 조기 퇴직자 재취업 지원\*
  - \* 생애경력설계, 재취업 역량 강화, 취업 알선 등
- 건강관리, 안전 등 평생교육 강화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 지역 의료·건강관리·돌봄 연계
- 노노케어 통한 상호돌봄
- 사전 장애준비 지원

**사망자 등에 대한 사후지원**

- 시신 인수가 없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 유가족 심리안정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1**

**추진배경**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은 고독사예방법 제6조에 따라 고독사 예방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협의해 수립하고 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개인주의 문화 확산, 감염병 재난 장기화 등에 따라 사회적 고립·단절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 \* 1인 가구 비중(통계청) : ('17) 28.6% → ('19) 30.2% → ('21) 33.4%
  - \*\* '22년 OECD 사회관계망 지표(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OECD 평균(91%), 한국(38위/80%), 영국(22위/93%), 일본(29위/89%)
-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단절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사망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고독사 문제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2022년에 실시한 정부 최초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2021년 우리나라의 고독사 수는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연평균 증가율 8.8%)로서 사회적인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1인 가구 표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 수는 약 152.5만 명으로 추정되며, 생애주기별 위기 요인이 상이\*\*한 상황이다.
    - \* 무작위 추출(지역·성·연령 고려)한 1인 가구(9,471명) 대상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위험군(2,023명, 21.3%) 선별 후 주된 위기 요인 조사(한국리서치, '22.11월~12월)
    - \*\* 청년(정서불안, 경제적 문제), 중장년(경제적 문제, 사회적 관계 문제), 노인(건강 문제)
- 사회적 고립·단절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정부 대책을 추진 중인 영국과 일본에서는 고립·단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범정부 계획\* 수립을 통해 사회적 연결·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 영국 : 외로움 대비 범정부 전략('18.10) / 일본 : 고독·고립 대책의 중점계획('21.12)
  - 특히, 영국과 일본의 범정부 계획은 고독·고립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 등을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책 수립을 위해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논의\*하여 다양한 과제를 발굴·검토하였고, 공청회('22.11.14.)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관계부처 8인, 지자체 2인, 민간전문가 10인) 구성·운영

## 2

### 추진전략별 주요 과제

- 기본계획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비전으로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를 위한 4대 추진전략, 13대 핵심과제로 수립되었다.

\* 2021년 1.06명 → 2027년 0.85명 목표

- 4대 추진전략별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 [추진전략 1]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 ① (인적 안전망 등 활용)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 및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대상\*\*\* 발굴 조사를 강화한다.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통반장 등 / \*\* 부동산중개업소, 식당 등

\*\*\* 다세대 주택 및 고시원 밀집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등, 중장년 1인 가구 등

- ②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경제적 취약가구 발굴 중심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위기정보\*와 생애주기별·지역특성별 차별화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을 개발한다.

\* (예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

- ③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고독사 위험군의 위험 정도 및 필요서비스 판단을 위한 점검표와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등이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 [추진전략 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 ① (지역공동체 공간 운영) 고독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기반시설을 활용해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예시) 커피·점심·취미활동·생활도움, 공유부엌 등 다양한 목적의 교류 활동 추진

- ② (사회관계망 형성) 지역별 가족센터를 활용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소통·교류·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역주민 간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 (예시) 청년(소통·교류 등), 중장년(자기돌봄 등), 노인(건강한 노년 준비 등)

- 특히, 사회적 고립가구가 단순 지원대상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연결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극적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예시) 독거노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에서 건강(해독)음료 생산·배달 등을 통해 지역 내 고독사 예방 활동 실시

- ③ (정보통신기술 활용 연결) 민간의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이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수도 등 평소 사용패턴을 학습 후 사용량 급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안부 확인을 추진한다.

###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응급상황 감지·지원 사례 >

◆ A씨는 다세대 주택에 홀로 거주하며 평소 집 밖으로의 외출이 적은 50대 중·장년임. A씨는 주민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부살핌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A씨의 60일 간 전력사용(15분 단위)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평소 전력사용 패턴을 학습함.

→ 실시간 원격검침 과정에서 A씨의 전력사용이 급변하였다는 위기 신호 입수

→ 주민센터 담당자는 A씨가 안부확인 연락을 받지 않자 직접 방문해 A씨가 쓰러져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 이송 및 치료

## [추진전략 3]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 지원

- ① (청년 위험군)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위험군이 필요로 하는 정서·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 청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 '21년 고독사 중 자살사망 비율은 20대 56.6%, 30대 40.2%로 매우 높으며, 청년 위험군은 가장 힘든 점을 정서불안과 경제적 문제라 답변

-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10년→2년)과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및 특화사업\*\* 연계를 통해 청년 위험군의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한다.

\* 사전·사후검사 및 1:1 전문심리상담 / \*\* 정신증 진단받은 청년 대상 만성화 예방 등 지원

- 청년 일경험지원사업\*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청년 위험군의 직무역량 향상과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한다.

\*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제공 / \*\*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제공, 취업 지원

- ② (중·장년 위험군) 건강관리·안전, 가사, 재취업, 사회관계 등 중·장년의 각종 일상생활 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 중·장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 '21년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58.6%)을 차지하는 연령대로, 중·장년 위험군은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관계 문제 해결이 중요

- 주기적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중·장년 위험군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일상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 돌봄, 병원 동행, 정서 지원 등 서비스 개발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발표 예정

- 복지대상자로 선별되는데 거부감이 심한 중·장년 위험군의 사회참여 유도과 고립적 일상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응모델을 마련한다.

- 조기퇴직한 중·장년 위험군에게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 교육\*\*을 추진한다.

\* 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활용해 생애경력설계, 재취업 역량 강화, 취업 알선 등

\*\*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교육내용 예시로 건강관리, 안전, 금융, 디지털 역량 등 포함



- ③ (노인 위험군) 지역 내 다양한 의료·건강관리·돌봄 서비스 등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 노인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 중·장년 다음으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로서 노인 위험군은 가장 힘든 점을 건강 문제라 답변, 기타 외출동행, 병원치료 등 서비스 욕구가 다양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연계, 방문의료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역 내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 위험군에게는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 일상생활(가사·이동 등) 지원 / \*\* 우울증 진단, 사회적응, 외부활동 지원 등
- 노인 위험군과 공공·민간 자원봉사자간 1:1 결연을 통한 정서지원과 지역 내 노인들간 상호돌봄을 위한 노노케어 등을 강화한다.
- 사전에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확산한다.

- ④ (사망 이후)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확대하고, 고독사 시신 발견·수습 과정에서 유가족·주변인들이 겪는 정신적 외상에 대한 심리안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추진전략 4]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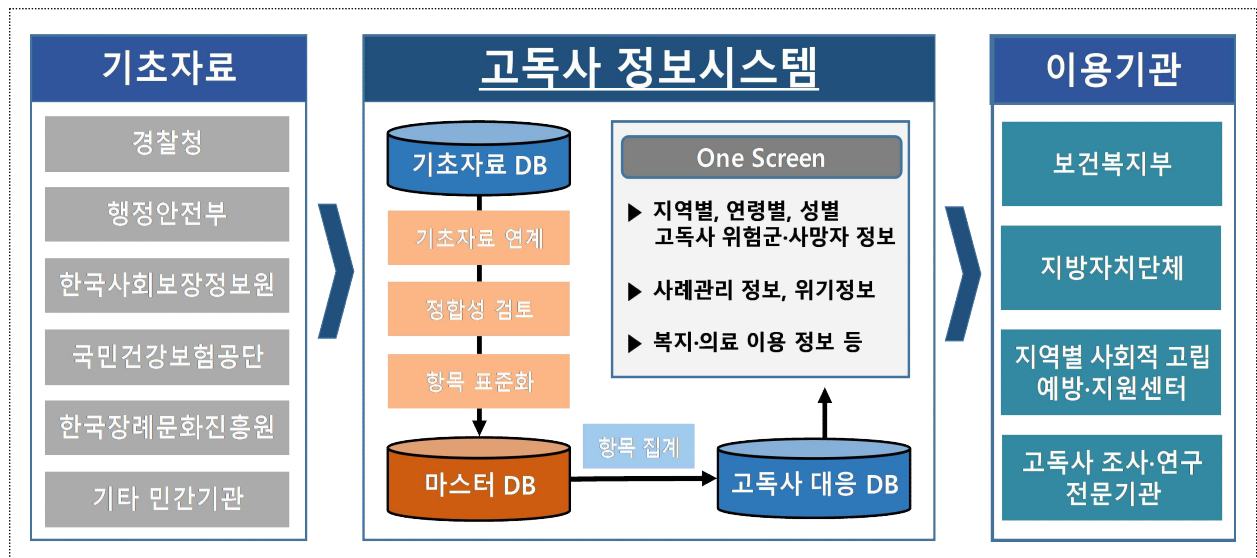
- ① (수행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중앙·지역별 전문기관 지정, 인력 확충, 정보시스템 구축, 실태파악 강화를 추진한다.
-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지원을 담당할 중앙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지역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한다.
  -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통합사례관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 고독사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한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사례 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경찰청, 행정안전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등

### < 고독사 정보시스템 개요도 >



-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를 단축 (5년→1년)함으로써, 매년 고독사 사망자와 위험군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추진한다.

### ② (지역 주도형 서비스 지원) 현재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역 주도형 서비스(안부확인, 생활지원 등) 제공('22.8월~'23.12월)

\*\* 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 「고독사 예방 사업 전국 본격화 조속 추진 건의문」 채택('23.3.13)

### ③ (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정책 소통을 통한 국민 인식 강화를 추진한다.

- 기관 간 정보연계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관리 활성화 유인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사회복지관 대상의 평가·포상을 강화한다.
- ‘(가칭) 고독사 예방의 날’을 지정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과 정책포럼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지속 제고한다.

**비전**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

**목표**

**고독사 발생 감소**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  
(‘21년) 1.06명 → (‘27년) 0.85명

**지역 주도형  
고독사 대응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추진 시군구 확대  
(‘23년) 39개 → (‘27년) 229개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

고독사 사망자·위험군  
실태파악 강화  
(기존) 5년 주기 → (개선) 1년 주기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추진전략 1]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1.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2.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3.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추진전략 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1. 지역주민 간 연결을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2.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
3.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

**[추진전략 3]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1. 청년 위험군을 위한 정서 및 취업 지원
2.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문제 관리·지원
3.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4. 사망자·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

**[추진전략 4]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1.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구축
2. 지역 주도형 서비스 신설 지원
3. 고독사 예방 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

## 붙임 4

## 기본계획 추진과제 목록

세부 추진과제	주 관	협 조	추진일정
<b>1.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b>			
<b>1-1.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b>			
①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복지부, 지자체		~'27년
②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체계 구축	복지부	-	~'27년
③ 시군구별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 추진	지자체	-	'23년~
<b>1-2.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b>			
①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필요한 행정정보 입수 확대	복지부	-	~'27년
②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모형 개발	복지부	-	~'27년
<b>1-3.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b>			
① 고독사 위기 점검표 개발	복지부	-	'23년
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복지부	문체부	'23년
<b>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b>			
<b>2-1. 지역주민 간 연결을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공간 운영</b>			
① 고독사 취약 지역 내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지자체	복지부	~'27년
②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을 연결 공간으로 활용	문체부	-	'23년~
<b>2-2.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b>			
①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여가부	-	'23년~
② 사회적 유대 형성을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 지원	지자체	-	'23년~
<b>2-3.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b>			
①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해 사회적 고립 완화	복지부	지자체	~'27년
② 실시간 원격검침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	복지부	지자체	~'27년
③ 공공임대주택 내 스마트홈 플랫폼 확대	국토부		'23년~
<b>3.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b>			
<b>3-1. 청년 위험군을 위한 정서 및 취업 지원</b>			
①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	복지부	-	'23년~
② 청년 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	'23년~
③ 구직단념청년 예방·관리 등을 위한 취업 지원 강화	고용부	복지부	'23년~

세부 추진과제	주 관	협 조	추진일정
<b>3-2.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문제 관리·지원</b>			
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주기적 건강관리 제공	복지부	-	'24년~
② 중·장년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 신설	복지부	-	'23년~
③ 개입거부 중·장년 사회참여 유도 모델 마련	복지부	-	~'27년
④ 조기퇴직한 중·장년 대상 재취업 지원 강화	고용부	-	'23년~
⑤ 중·장년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강화	교육부, 지자체	-	'23년~
<b>3-3.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b>			
① 의료·건강관리·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복지부	-	'23년~
②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제공	복지부	-	'23년~
③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지체계 구축	복지부	-	'23년~
④ 사전 장례준비를 위한 지원 강화	복지부	-	'24년~
<b>3-4. 사망자·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b>			
①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확대	복지부	지자체	'23년~
② 고독사 유가족·관계자 지원	복지부	지자체	~'27년
③ 고독사 사후지원 보장 보험상품 개발	복지부	지자체	'24년~
<b>4.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b>			
<b>4-1.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구축</b>			
①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복지부, 지자체	-	~'27년
② 지자체 업무수행 기반 강화	복지부	지자체	~'27년
③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복지부	-	~'27년
④ 주기적인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군 실태파악	복지부	경찰청	'24년~
<b>4-2. 지역 주도형 서비스 신설 지원</b>			
① 고독사 예방 서비스 전수조사 실시	복지부	-	'23년~
② 지역 주도형 서비스 도입·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복지부	-	~'27년
<b>4-3. 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b>			
① 고독사 예방법 개정	복지부	경찰청	'23년~
② 고독사 예방·관리 활성화 유인 강화	복지부	-	'23년~
③ 고독사 예방의 날 지정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 추진	복지부	-	~'27년
④ 사회적 고립 예방 포럼 구성·운영	복지부	-	'23년~